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예수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24)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니다.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신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권능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셨습니다

시편 62:11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했습니다. 권능은 그 누구도 훔쳐 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 영역입니다. 창조의 권능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개척 후 지금까지 29년간 이 제단에는 권능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습니 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권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치료의 역사도 훨씬 급속해졌고 ‘이런 것까지 될까’ 생각할 수 있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자매님이 기도받고 곧바로 치아가 교정된 일이 있었지요. 또 휴대폰 조작도 잘 못하는 성도님들의 휴대폰 화면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는 간증도 매우 놀랍습니다.

더욱이 예전과 비교하면 권능의 역사가 상상을 뛰어넘는 차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잡자리의 공간 이동과 출현, 기후와 날씨의 조절, 하나님 형상의 근본의 빛인 오로라 빛 등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최고의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2:22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15:18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했지요. 이처럼 권능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보장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둘째, 말씀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한 후 하나님 말씀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성경 말씀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금식과 기도를 했습니다. 7년을 변함없이 간구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깊은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성경 말씀에 담

긴 영적 의미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지식, 생각, 이론 등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알 수 없는 영의 세계까지도 풀어주셨지요.

그중 ‘십자가의 도’는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정확히 진단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믿음의 분량’ 역시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깨우는 획기적인 말씀이지요.

특히, ‘영혼육’ 말씀은 비진리의 ‘나’를 벗고 온 영(살전 5:23)의 사람으로 나오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인간의 근본을 낱알이 해부해 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또한 사후 세계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는 ‘천국’과 ‘지옥’을 비롯해 기도, 예배, 치료, 응답, 믿음 등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내용을 세세하게 풀어주신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님을 닮은 참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영의 양식을 풍족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팔복,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장, 선의 단계 등 성결을 이루어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말씀들을 풀어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단에서 증거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개척 이후로 지금까지 해온 수많은 예언이 단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열매로 우리와 늘 함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20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교회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힙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을 만

나고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지요. 영혼들을 살리는 선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종 질병과 사고, 재앙으로부터 늘 지킴 받습니다. 설령 어다가 아파도 화개하고 기도받을 때 즉시로 치료됩니다. 진리 안에 정도를 걸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기도받으면 사업터, 일터가 축복받고 형통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의 열매가 우선입니다. 그럴 때 강건함의 축복도, 범사에 형통한 축복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이 믿음의 반석을 넘어 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주어져서 급속한 속도로 영의 흐름을 타고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이와 함께 교회적으로도 놀라운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전 세계 170여 개국을 커버하는 만민TV와 GCN(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을 통한 방송선교가 있지요. 또한 60여 권의 저서가 7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및 진행 중이며, 이미 28개 이상의 언어로 출간됐습니다.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이 설립돼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의학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세계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MIS(만민국제선학교)를 통해서도 수많은 해외 주의 종이 성결의 복음을 배워 각 나라의 영혼들에게 전파하고 있지요.

수십 차례에 이르는 해외 연합대성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하는 많은 기록과 역사를 남겼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 선교를 통해 복음이 2천여 년 만에 땅끝 이스라엘로 회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역사적인 연합대성회를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람의 힘이나 물질, 권세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함께하셨기에 가능한 열매입니다. 지난 29년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온 세상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주신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팀 (02)818-7391-3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안·청년·배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